

# ‘전기차도 눈치작전...고민빠진 소비자들’

## 신규 차량 기다릴지, 보조금부터 신청할지 선택해야

지자체별로 전기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를 신청할지, 앞으로 출시 예정인 전기차를 기다릴지 선택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전기승용차는 총 8종을 구입할 수 있고, 최대 차량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려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올해 전기차를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보조금 규모는 2만대 수준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생각이라면 서둘러 접수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망설이는 소비자도 있다. 아직 출시하지 않은 차량을 기다리는 ‘대기 소비자’다. 현재 출시 예정인 차량은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의 니로EV다. 두 차량 모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300km를 넘는 3세대 전기차로 평가받는다. 테슬라의 모델S와 한국GM의 볼트EV를 제외하면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주행거리 문제가 전기차 최대 단점인 만큼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EV를 구입하는 게 최선이지만 출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코나 일렉트릭은 4월, 니로EV는 7월에 출시한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2016년 3월에 공개됐지만 차량 출고는 그해 하반기에



현대차가 지난 8일 공개한 코나 일렉트릭 티저 이미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EV도 제때 판매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지난달 15일 실시한 코나 일렉트릭 예약 접수가 이벤트성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코나 일렉트릭 예약 접수를 실시해 1만대 예약 판매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차량 생산 일정이나 보조금을 감안했을 때 1만대를 올해 안에 소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전예약 시스템은 미국의 테슬라가 먼저 시도한 마케팅 방식이다. 2016년 3월 사전예약을 실시해 단 며칠 만에 30만대를 돌파하며 전세

계 자동차 시장을 흔들었다. 하지만 차량 인도는 2019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샀다.

전기차 소비자들은 아직 출시 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 모델을 기다릴지,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에 기존 전기차라도 구매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2016년 대비 2017년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현재 전기차 구매 수요가 생산량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 신규 차량을 기다리기보다는 서둘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위대용 기자 wee@

## 대국민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 LH, 28일까지

LH가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혁신’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국민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28일까지 진행한다.

‘사회혁신 확산’, ‘국민서비스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3개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설계부터 평가까지 사업 시행 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혁신’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모들과는 차별화된다.

‘사회혁신 확산’ 분야에서는 LH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추진할 만한 사업을, ‘국민서비스 혁신’ 분야에서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LH의 역할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발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분야별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내부심사를 거쳐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 시민주도 가능성, 실현성, 창의성을 평가한다.

최우수상 1건(상금 500만원), 우수상 7건(상금 100만원), 장려상 10건(상금 30만원)을 선정해 4월 19일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전은 인터넷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idea.epeople.go.kr)에서 응모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이석희 기자 xxi@

## 한전KDN, ‘해외수출용 계량데이터 관리·분석 패키지’ 개발

### 누리텔·에이투엠 등과 컨소시엄...2020년 5월까지 진행

한전KDN(사장 박성철)이 해외 표준 규격에 부합하고 계량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해외수출용 계량데이터 관리·분석 패키지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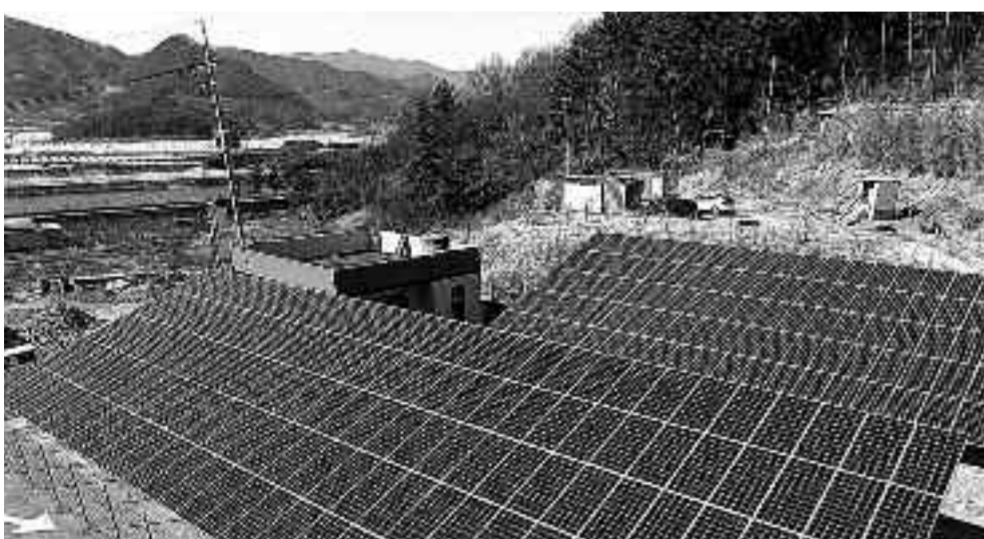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지난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년4개월간 진행된다. 누리텔레콤, 에이투엠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총 33여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 AMI사업 수요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제 표준화된 계량

데이터 관리·분석 패키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전KDN 관계자는 “신흥개발국 등에 수출이 가능한 에너지 사업분야 상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ICT공기업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cb1970@



폐업한 가스충전소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 폐업 가스충전소 유휴 부지 태양광 발전소 준공

### 해중, 90kWp 용량으로 연간 약 10만kWh 전력 생산

### 독자 개발 발전량 시뮬레이터 이용 사업·수익성 등 분석

해중(대표 권오현)이 건물옥상이나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해중은 13일 경남 하동 폐업 가스 충전소 유휴 부지에 90k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90kWp 용량으로 연간 약 1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가구당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228kWh)을 기준으로 약 37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320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해중 측은 “건물 옥상과 철도,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발해지

고 있다”며 “규제와 민원으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태양광 발전 부지를 찾는 수요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유휴부지라고 해서 무조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중은 발전 사업 가능 여부와 예상 전력량, 수익 규모 등을 따져 고객에게 알려준다.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과거발전량 시뮬레이터로 지난 5년간 기상조건에 따른 발전시간을 월별로 산출,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권오현 해중 대표는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확보도 가능하다”며 “태양광이라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어 일석삼조”라고 밝혔다.

해중은 홈페이지(www.haezoom.com)에서 설치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태양광 사업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 태양광 수익성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 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설치할 부지의 태양광 사업 가능 여부, 수익성 등을 분석해 알려준다.

김예지 인턴기자 kimyj@

## ‘창업·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확 늘린다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모 ‘시동’...이달 23일 사업설명회 예정

청년층을 위한 창업·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분격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모 대상은 공사를 포함한 지자체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7월 31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제안 부지의 사업 가능성, 입지여건, 창업·전략산업과의 연계 계획 등에 대한 종합 서류심사와 현장조사·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 말 최종 후보지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공사, 지자체의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재정·기금이 지원되며, 여건에 맞는 인재에게는 행복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자체의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

거를 위해 주거와 사무가 복합된 소호형 주택 평면과 더불어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성남 판교 등 전국 9곳 1526호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지자체별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향후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해당 지역 산업 발전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자체 공모를 위해 오는 23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 사업시행 시 특전, 주요 사례와 제안서 작성요령 등이 소개된다.

김광국 기자 kimgg@

## 한국GM 군산공장 5월 말까지 폐쇄

### 자구노력 일환, 직원 2천명도 구조조정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대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GM과 한국GM은 13일 이 같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GM과 한국GM은 5월 말까지 군산공장 폐쇄와 직원 약 2000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GM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의 생산설비 등을 모두 유지한 채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도공,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속도낸다’

### 남한산성터널 발파 시 진동 최소화, 친환경 공법 적용

### 고속도로 완공 시 평일 108분·주말 129분-70분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 12일 남한산성 터널의 시작 부인 성남시 중원구에서 첫 발파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에 자리한 남한산성 터널은 총 연장 8.3km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이 될 예정이다.

특히 터널 굴착공사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을 반영해 공사 시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친환경 공법이 적용된다. 터널 입구에 남한산성

의 ‘지하문’과 ‘수어장대’를 형상화 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내부엔 음방지용 경관조명과 첨단 환기시설 등의 안전시설도 갖출 계획이 다.

한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해 7월 민자사업에서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전환됐다. 도로공사는 민자 대비 1년 6개월가량 공기를 단축해 오는 2024년 6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에는 총 8조1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왕복 6차

로, 총 연장 130.2km 규모로 이어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을 60% 정도 감소하고, 통행 속도를 10km/h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 수준인 통행시간도 70분대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남한산성 터널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장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jahn@

## 원자력환경공, 방폐장 특별 안전점검 나서

### 평창 동계올림픽·설 연휴 대비 방폐장 시설점검

원자력환경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 기간에 특별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했다”며 “상황근

점검에 나선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은 13일 평창 동계올림픽 및 설 연휴 대비 방폐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재난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단을 구성해 방폐장 현장의 지상 지원시설, 사일로, 2단계 공사현장, RI 폐기 시설 등 재해취약시설을 점검했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를 설 연휴 재난 안전관리 대책 추진기간,

무 강화, 재난·안전사고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 방호시설 점검과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해 방폐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jzh@



공단 경영진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이 방폐장의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